

국민의당 출신 박준영·송기석 의원직 상실

박 의원, 총선 앞두고 3억5000여만원 수수 혐의... 송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국민의당 출신 두 의원이 8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나란히 당선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구에서는 오는 6·13 지방선거일에 재선거가 진행된다.

‘공천헌금’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은 실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 절차를 밟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원형 공직선거법상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사무장·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남도지사 3선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3)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겼고 국화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선고 후 박 의원은 재판부의 사실판단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고,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의원과 김씨의 지위, 신민당 창당 추진 상황 및 재정 상태, 민주당과 통합 등 박 의원의 정치적 입지 변화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면 김씨가 당시 민주당 등에서 자신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 미녀응원단의 축하공연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입촌식이 열린 8일 오전 강원 강릉올림픽선수촌에서 북한 응원단이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이어 “박 의원 역시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한 점, 박 의원이 김씨에게 먼저 창당 경비 지출 또는 선거자금 지원을 요구한 점, 박 의원이 받은 돈의 액수가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총선 당일 선거구 내 영향력 있는 이들 57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 기간에 8000만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송기석(55·광주 서구갑) 국민의당 의원 측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한 징역형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임도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로 하고 있다.

임씨는 2016년 4·13 총선 당시 전화홍보 지원봉사자 9명의 수당 819만원, 문자메시지 발송비 650만원, 여론조사비 1000만원 등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했으며, 회계 보고 때 이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변경해야 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공정선거를 위해 선거 관계자에게 금품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등록도 하지 않은 홍보원에게 수당을 쥐 선거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지방선거 승리로 무주발전 박차”

안호영 의원 의정보고대회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원주·진안·무주·장수·사진)이 무주지역 기자간담회와 의정보고대회를 열고 지난해 성과와 새해 포부를 밝혔다.



8일 오후 2시부터는 무주에체문 화관에서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황정수 무주군수, 유승열 무주군의회장 백경태 도의원 등 내외귀빈과 무주군민 8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안호영 국회의원의 무주의정보고대회가 개최됐다.

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무주군민들께서 보내주시신 성원 덕분에 5개 기관으로부터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등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무주군의 도약과 응시를 위해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통령선거, 상임위, 입법, 지역구 부분의 의정활동 내용을 정리해 만든 영상을 상영해 시선을 끌어 모은 뒤, 안 의원이 직접 무대에 올라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무주군의 국가예산 확보사항을 집중 설명함으로써 참석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도를 높였다.

김춘진 도당위원장은 “안호영 국회의원의 의정보고 내용이 알차고 성실하다”며 “가장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안호영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고 격려했다.

의정보고회를 마친 뒤에는 지역민의 민원이 제기된 현장을 관계기관 책임자와 함께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을 만나고 의견을 경청한 뒤 대안을 고민하는 행보를 이어가며 의정보고대회를 마무리 했다.

이에 앞서 안호영 국회의원은 8일 오전 무주군 기자회견에서 무주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의정활동과 국가예산확보 등의 성과를 설명하고 올해 지방선거와 정국방향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세계태권도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반딧불축제에 대표축전 선전에 힘을 보탬 수 있어서 보람됐다”며 “차별받던 예산이 정상화되고 숙원사업이 해결되면서 무주가 대한민국 내로 친환경 관광도시로 성장할 초석을 놓았다”고 자평했다.

또 “정권교체가 됐기에 가능했던 성과들이 상당히 많다”며 “결과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무주군민 여러분 덕분에”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도 이어졌다. 동서횡단 교통망에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에는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 무주-성주간 고속도로와 전주-김천간 철도 등 동서횡단 교통망 구축이 중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계속 찾아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최근 특정 후보의 전략 공천설은 사실무근이다”며 “중앙당의 경선원칙과 일정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심사부터 전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지역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상생의 노력이 부족해 갈등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상생이까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미 갈등해결을 위해 중재역할도 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주=전선진 기자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점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8일 전주시 일원의 백화점, 점점방 등 다중이용업소와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영업장 내 소방 장비·시설 등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피시설을 확인하는 등 활발한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점검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영업장 내 소화기, 자동화재 탐지설비, 소화전 등의 각종 소방시설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화재발생 시 이용객 대피를 위한 피난대책 수립여부 및 비상구 등 대피로 실태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였으며, 화재예방을 위해 영업주와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철저한 예방관리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서 집행유예 선고...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해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과 관련해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를 특별감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사흘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5일부터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란 제목으로 시작된 이 청원은 8일 오전 9시 30분 기준 20만5490여명이 참여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 마감 한 달 안으로 공식 답변을 내놓게 돼 있다.

청원인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한다”면서 “국민 상식을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읍조리며(조아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 만에 풀려났다.

청와대가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은 이번 청원을 비롯 압호화폐(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폐미니즘 교육 의무화 등이다. /뉴시스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명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01	취미계층 맞춤형 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원 지식보급 5,733,677,999
...	...
66	참여해주시는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9	99

홍보대사 류수영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편한민국)